



HEADLINE NEWS

公用 디젤차, 저공해차로 대체 (東京都 世田谷區)

東京都 世田谷區는 2003년 말까지 區가 보유한 디젤차를 원칙적으로 모두 폐차시킬 계획이다. 世田谷區는 향후 公用車를 구입할 때에는 압축천연가스(CNG)차와 LPG차 등 저공해차로 바꾸고, 지진 시물레이션용 起震車 등 대체할 수 없는 특수 디젤차에는 배기가스 정화장치를 장착할 방침이다.

世田谷區의 公用車는 청소차량을 포함해 2000년 현재 406대로, 이 중 디젤차가 55대 이고, 저공해차는 32대이다. 향후 世田谷區는 2003년 말까지 저공해차를 100대로 늘릴 계획이다. 世田谷區는 현재 일반 가솔린차와 디젤차보다 가격이 비싼 저공해차의 비율을 증가시키기 위해 잔용년도가 없는 디젤차부터 교체하거나, 배기량을 1등급 낮출 방침이다. 아울러 디젤차 1대당 50만~200만엔인 배기가스 정화장치 장착비용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다.

(日本經濟新聞, 2001. 1. 15)

HIGHLIGHTS

도시관리

- ① '옥상녹화' 실시하면 용적률 완화혜택 제공 (동경)
- ② 대대적인 도시녹화사업 실시 (시카고)

도시환경

- ③ 매립지 터에 골프장 건설 논란 (뉴욕)
- ④ 도심부에 대기오염 방지용 포석 설치 (런던)
- ⑤ 나무를 도시 유산으로 지정하고 「나무관리헌장」 제정 (리옹)

도시교통

- ⑥ 하네다 공항의 국제선 취항 일부 허용 (동경)
- ⑦ 자전거이용 활성화 정책 성공적으로 추진 (시애틀)
- ⑧ 130km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 (파리)
- ⑨ 지하철역 이용자의 가장 큰 불편사항, '혼잡' (뉴욕)
- ⑩ 녹지 조성 위해 '고속도로의 지하화' 추진 (보스턴)
- ⑪ 도시경전철 43년만에 '부활' (리옹)
- ⑫ 「도심부 Car-free Day」시책에 대한 주민투표 실시 (콜롬비아 : 보고타)
- ⑬ 도심부를 가로지르는 지하철노선계획 추진 (동경)

행정재정

- ⑭ 행정조직의 효율화 위해 「도청개혁행동계획」 수립 (동경)
- ⑮ 마을 단위로 행정정보센터 설치 (보스턴)

① ‘옥상녹화’ 실시하면 용적률 완화혜택 제공 (동경)

東京都는 기존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빌딩 등의 건설업체들이 ‘옥상녹화’를 실시하면 용적률을 보다 완화해줄 방침이다. 都는 이를 위해 都内 대규모 개발 계획을 추진하는 지역에 적용할 수 있는 ‘용적률 보너스’ 규정을 금년 중으로 신설할 계획이다. 아울러 都는 올해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을 대상으로 ‘옥상녹화’를 실시하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하기 시작했다.

(日本經濟新聞, 2000. 12. 8)

② 대대적인 도시녹화사업 실시 (시카고)

시카고市는 현재 도시를 푸르고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 4개 사업으로 이루어진 대대적인 도시녹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첫 번째 사업은 도시공간 녹화계획(CitySpace Plan)으로, 시카고 대도시권을 대상으로 철도, 수로, 학교 주변에 방치되어 있는 빈 공간을 녹화함으로써 도시의 이미지를 향상시키려는 장기적 계획이다. 두 번째 사업은 市와 市 교육청이 공동으로 전개하는 교정 공원화 사업(Campus Park Program)으로, 550개에 달하는 초중고의 운동장과 그 주변을 대상으로 교직원, 학생 및 지역주민이 참여하여 녹화계획을 수립, 조경녹화를 실시함으로써 지역 공원을 조성하고 있다.

세 번째 사업은 마을공간 녹화사업(NeighborSpace Program)으로, 주거지역에 방치되어 있는 공터를 지역정원으로 가꾸는 사업이다. 이 사업을 통해 마을마다 정원이나 소공원을 조성, 주민들이 직접 꽃이나 채소를 기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네 번째 사업은 수변공간 녹화사업(Riverfront Development)으로, 시카고江 주변의 공원, 녹지, 산책로 등을 하나의 녹지띠로 조성하는 것을 장기적 목표로 하고 있다. (Urban Land, 2000. 9)

3 매립지 터에 골프장 건설 논란 (뉴욕)

뉴욕市에서는 현재 브롱스구의 웨리포인트 공원(Ferry Point Park)내의 옛 매립지 터에 골프장을 건설하는 문제를 두고 市와 주민 및 환경단체들간에 찬반논쟁이 전개되고 있다. 1963년에 폐쇄된 매립지 터에 18홀의 골프코스과 클럽하우스 등을 건설하려는 市의 계획에 대해 주민 및 환경단체들은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한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주민 및 환경단체들은 아직 이 지역의 오염물질에 대한 조사와 환경영향평가가 불충분할 뿐만 아니라, 골프장 건설은 이 지역에 축적되어 있는 메탄가스를 분출시킬 가능성이 있어 주변 가옥들에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市는 과거 이 지역에서 메탄가스가 분출된 적이 있지만 지금은 그럴 가능성이 없으며, 이 지역에 대한 가장 이상적인 개발모델은 골프장 건설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The New York Times, 2000. 12. 5)

4 도심부에 대기오염 방지용 포석 설치 (런던)

런던市는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유독물질을 흡수하는 도로포장용 돌을 도심부에 설치할 계획이다. 현재 런던 웨스트민스터 의회에서 효능테스트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 테스트가 성공적으로 끝나면 곧바로 설치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산화탄소가 함유되어 있는 이 포석은 햇빛을 이용해 흡수한 대기 중의 질소산화물을 무해한 질소와 산소로 변환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市는 이 포석이 도심부의 대기오염 문제를 개선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www.britain.or.kr/korean/young/index.htm)

5 나무를 도시 유산으로 지정하고 「나무관리헌장」 제정 (리옹)

프랑스 리옹광역시는 최근 관내 6만여 그루의 나무를 보호해야 할 도시 유산으로 지정하고, 「나무관리헌장(Charte de l'arbre)」을 제정했다. 이 헌장은 나무관리 및 식목 방법 그리고 녹지공간 보존을 위한 시민참여 방안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도시·환경·교통·지역경제개발계획 추진시 이를 적극적으로 적용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시는 지난 10년간 녹지관련사업을 추진하면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이 헌장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www.grandlyon.com/actualite/zac00112701.htm)

6 하네다 공항의 국제선 취항 일부 허용 (동경)

일본 운수성은 그동안 국내선 전용으로 이용되어 온 하네다 공항에 대해 심야 및 새벽시간대의 전세기 등 국제선 취항을 부분적으로 허용했다. 이에 하네다 공항의 국제화를 추진해온 東京都 및 가나가와縣은 이를 적극 환영하면서 소음대책 수립 등을 운수성에 촉구하고 있다. 이에 반해 하네다 공항의 국제선 취항을 반대해온, 나리타 국제공항이 있는 지바縣은 이 조치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하네다는 국내, 나리타는 국제라는 식의 역할 분담론은 재고되어야 한다’는 운수성장관의 발언에 대해 ‘원칙을 무시한 발언’이라며 강한 반발을 보이고 있다.

(日本經濟新聞, 2000. 12. 8)

7 자전거이용 활성화 정책 성공적으로 추진 (시애틀)

시애틀시는 자전거 도로망을 개선·확충하는 자전거이용 활성화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최근에 실시한 시 교통국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1992년 이후부터 출퇴근시간대 도심 진출입시의 자전거 이용자수가 5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자전거 통근자의 증가에 힘입은 시는 최근 자전거 인프라 확충사업의 일환으로, 잘 미끄러지지 않고 내구성이 강하며 밤에도 식별이 가능한 550개의 표지판을 자전거 도로상에 설치하고 있다.

(www.ci.seattle.wa.us/news/detail.asp?ID=1234)

8 130km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 (파리)

파리지역에 130km에 달하는 자전거 전용도로가 최근 설치됐다. 1996년 1월 장 티베리 파리시장의 ‘도시공해와의 전쟁’ 선포 이후 계획된 이 도로는 파리의 남북과 동서 노선을 중심으로 뱅센느와 불로뉴 숲을 지나고 있다. 자전거 전용도로 노선 및 관련 시설들은 각계 전문가, 정책 입안자, 시민단체 관련인사로 구성된 ‘자전거위원회’에서 결정되었으며, 일부 구간은 일요일에 한해 자동차 진입이 통제된다. 이와 관련, 파리시의회와 區의회는 「자전거헌장(charte du velo)」을 제정하고, 자전거 전용도로 안내지도를 시민들에게 배포해 주고 있다.

(www.paris-france.org/Parisweb/FR/Vivre)

9 지하철역 이용자의 가장 큰 불편사항, ‘혼잡’ (뉴욕)

뉴욕시 지하철 승객들은 지하철역 이용시 가장 큰 불편사항으로 역의 ‘혼잡’을 꼽고 있으며, 대부분의 역에 대한 만족도 또한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하철승객 지원그룹인 ‘Straphangers Campaign’이 실시한 뉴욕시 지하철역에 대한 승객 만족도 조사결과에 따르면, 5점 만점인 역에 대한 만족도가 2~3점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는 각 역마다 비치해둔 조사카드에 승객들이 청결성, 안전성, 혼잡성, 접근성, 안내표지 및 방송 등 5개 항목에 대해 1에서 5점까지 점수를 기재한 후 접수함에 넣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현재까지 총 4천여 명이 이 조사에 응했다.

(The New York Times, 2000. 11. 30)

10 녹지 조성 위해 ‘고속도로의 지하화’ 추진 (보스턴)

보스턴시는 93번 고속도로의 도심지 관통 부분을 철거하고 그곳에 첨단지하고속도로를 2004년까지 건설하는 「Big Dig」 사업계획을 최근 수립했다. 시는 이를 위해 총 140억 달러를 들여 도심지에 약 30에이커의 공간을 확보해, 이 중 75%를 수목이 울창한 녹지공간으로 보존하고 25%를 개발할 예정이다. 이 개발계획에는 식물원·예술공간·상가 조성 등이 포함된다.

(The New York Times, 2000. 12. 21)

도시경전철 43년만에 '부활' (리옹)

프랑스 리옹市에서는 도시경전철(Tramway)이 43년만에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도시는 더 이상 자동차를 위한 곳이 아니다'는 市 교통정책의 일환으로 리옹교통공사(SYTRAL)가 4년 전부터 시작한 경전철사업은 리옹의 남북 및 동서를 잇는 2개 노선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도시경전철은 보행자우선 신호체계, 중앙제어장치와 소음방지장치 등 최신 시설 및 운영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공사비는 약 800억원/km인 지하철 공사비의 약 1/4 수준인 약 216억원/km이 소요되었다. 개통식은 2000년 12월 18일 개최되었으며, 올해 1월 2일부터 일반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다. (www.leprogres.fr/infodujour/Rhone)

「도심부 Car-free Day」 시책에 대한 주민투표 실시 (콜롬비아 : 보고타)

콜롬비아 보고타市는 「도심부 Car-free Day」 시책에 대한 주민투표를 2000년 10월 29일 실시했다. 현 市長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 시책은 공공교통의 확충과 정비, 자전거 도로망의 정비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는 프로젝트이다. 이 시책이 추진되면 자동차 배기가스에 의한 도심부의 대기오염을 방지할 뿐 아니라 승용차를 보유한 고소득자와 보행 및 대중교통 이용자인 저소득자간의 인간적 장벽을 허무는 데 기여할 것으로 市는 기대하고 있다.

(japan-sustran@egroups.co.jp)

도심부를 가로지르는 지하철노선계획 추진 (동경)

東京都는 새로운 지하철노선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Oedo」라고 불리는 이 지하철 노선은 도심부를 운행하는 4번째 노선이 될 예정이다. 都는 향후 14년 동안 1조 3천9백억엔을 투입해 민간 및 공공 지하철·전철 노선이 복합된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都는 총연장 41킬로미터인 이 지하철 노선이 도심부 전체를 가로질러 운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일본 운수성은 아직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2015년까지 몇 개 노선을 도심부로 연결, 확장하는 문제를 검토중이라고 밝힌 바 있어, 실현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

(www.individual.com/browse/story.shtml?story=h1211050.700&level1=46636&level2=46675&level3=113&date=20001212)

㉞ 행정조직의 효율화 위해 「도청개혁행동계획」 수립 (동경)

東京都는 행정조직의 효율화를 위해 都營사업의 민영화, 민간위탁 및 민자유치 확대 등을 골자로 한 「도청개혁행동계획」을 수립했다. 특히, 올해부터 東京도심부를 운행하는 都營버스의 독점권이 해제됨에 따라 都營버스의 민영화를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이밖에 조직개편, 여권발급 및 주택분양의 민간위탁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日本經濟新聞, 2000. 12. 14)

㉞ 마을 단위로 행정정보센터 설치 (보스턴)

보스턴市는 주민들에게 행정서비스 안내와 市內 명소 및 행사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을 단위로 키오스크(Kiosk) 형태의 정보센터를 개설,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市의 재정지원으로 설치된 이 정보센터에서는 인터넷 등을 통해 주민들이 실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정보를 주민 접근이 용이한 장소에서 실시간 제공하고 있다.

「보스턴 i」라고 불리는 이 정보센터에서 제공되는 행정관련 정보는 시장과의 핫라인, 세금 및 각종 공과금 안내, 도서관 서비스, 마을의 주요 명소와 행사 일정, 각종 채용공고, 공원 및 대중교통 정보 등이 있으며, 생활관련 정보로는 영화, 식당, 호텔 및 숙박시설, 박물관, 극장 및 예술공간 등에 관한 정보가 제공되고 있다.

(ci.boston.ma.us/MIS/kiosk1.asp)